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전통혼례음식 인식 정도에 관한 연구

김 경 묘*, 조 용 범†

*경남정보대학 겸임교수, 동의대학교 외식산업경영학과 부교수

A Study of the Housewives' Perception Level on Wedding Food in Busan & Kyungnam Area

Kyoung-Myo Kim*, Yong-Bum Cho†

*Education Minister,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professor, Dept. of Food Service & Restaurant Management, Dong-eu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rvey the degree of the perception and necessity of wedding food prepared by housewives. The participants of the survey were 331 housewives lived in Busan and Kyungnam area. The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housewives lived in Busan and Kyungnam area had evaluated the necessity of wedding foods, Paebaek foods or Yedan foods. The respondents of 36.6% answered that they will order wedding foods from specialists, whereas 28.7% said that they will prepare them by themselves.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56.2%) thought that current wedding foods were prodigal and have to be done in thrifty manner. Broadly 46.8% of the respondents considered that the ritual practices of wedding foods will decrease steadily.

A conclusion was that lots of participants had a negative view of wedding foods and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them to reflect traditional wedding customs with economic costs.

Key words : housewives, wedding foods, Paebaek foods, Yedan foods, Ham, Honseoji.

I. 서 론

현 사회에 들어와 전통 혼례 음식 문화는 혼례와 혼례 음식 상차림의 간소화라는 변화를 이루는 반면 이는 한국의 혼례 문화를 서구 지향적 으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전통 혼례 음식 본래의 의미인 기복과 향응의 의미는 상실하고 혼인 가정의 부의 과시처럼 부풀려져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TV 등을 통해 유명인들의 혼례 풍속도를 보면 빈부 간이나 세대

간의 격차를 더욱 느끼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 당사자와 가족 집단 간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즉 혼례는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축복적이고 신성한 날로 혼인 당사자에게 있어 가장 특별한 의례적 절차이고 한 집안에 있어서도 경사의 날이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일생에 한번이기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 오늘날의 잘못된 혼례 문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 : 교신저자, 011-752-9659, ybcho22@deu.ac.kr, 부산시 진구 가야3동 산 24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혼례란 신성한 의례로 혼례의 본래 의미는 한 쌍의 남녀가 혼인을 함으로써 개인 간의 결합과 양가라는 가족 집단이 인연을 맺어 가정이라는 사회적 조직체를 형성하는 공인의 성격을 가진 의례 절차이다(윤숙경 등 1997).

또한 혼례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 까지 한 생명이 거치는 통과 의례 중 동서고금을 뛰어넘어 인간이면 누구나 거치는 행사로서 통과 절차 중 가장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다. 통과 의례는 인간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그 의례 내용은 통과 의례에 이르게 한 신에게 감사드리는 제례적 요소와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는 축제적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제례적 축제에는 통과 의례의 의미에 부합하는 특별한 음식,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었다(김경묘 등 2002). 특별한 의례가 아니면 우리나라 일상식인 밥, 찬, 국에 있어 다소 부족했던 영양소를 공급 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전통 혼례 음식은 영양적으로 우수한 음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혼상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음식 접대 혹은 음식을 통한 사회적 교환 등 독특한 음식 문화가 유난히 발달(정혜경 등 1997)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큰상은 현대에 와서 이용률은 낮으나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갈 때 그 날의 음식을 선물로 돌려보내는 풍습(강인희 1996, 윤숙경 등 1997)으로 혼인에 참석한 하객들에 대한 음식의 접대와 더불어 혼인으로 자주 볼 수 없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사회적 교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관혼상제의 의례 음식 중 혼례 음식은 민족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생산과 소비 방식 역시 다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통과 의례에 사용된 음식을 통해 음식의 문화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전경수 1985).

전통 혼례 음식은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수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급박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현대에 이르러 통과 의례에 관련된 음식문화는 의례 음식이 지난 참된 의미는 지키려 하나, 지나친 서구적 퓨전화로 인해 본래의 의미와 모습은 퇴색되었고 이 중에서도 혼례 문화와 그에 따른 혼례 음식은 지나친 상품화로 인하여 가정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혼례 음식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부들의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사회 진출은 주부들에게 고소득과 문화적 풍요를 주었으나 이로 인한 도시화, 산업화는 혼례 문화와 혼례 음식이 과거에서 현재로 연결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점차 감소시켰다. 또, 집에서 의례적 행사를 치루는 것보다 밖에서 행함으로 인해 의례 음식을 장만하는 행위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전통 음식을 장만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이것이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이어졌다고 사료된다.

IMF 전후인 1997년에는 일부 계층의 부의 과시처럼 혼례 음식을 준비하는 경향이 이루어져 극도로 사치화 하는 혼례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정혜경 1997)를 나타내었고, 1999년 1월 6일자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므로 인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우리의 혼례 음식 또한 그와 더불어 더욱 고급화, 허례 허식화(허홍국 2000)되고 있으며, 이 또한 대다수의 주부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혼례 음식 문화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 기존의 연구 중 2002년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혼례 음식 관행과 태도에 관한 조사”에서 몇 가지 항목, 즉 종교별 및 자녀의 성별, 자녀 수, 출가한 자녀의 성별, 출가한 자녀 수를 추가하여 이를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자 함께 본 논제를 채택하였고, 또한 향후 혼례 음식의 전망에 대한 기초 자료로

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통 혼례 음식(婚禮飲食)의 개념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을 혼인(婚姻)이라 하며, 이는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일정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중에서도 가장 경사스럽고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의례(儀禮)라 할 수 있다(강영자 등 1999). 혼례 음식은 혼례를 행할 때 사용되는 음식으로 우리나라 혼례에 관련된 음식차림은 납폐할 때의 봉치떡, 초례를 행할 때 동뢰상차림, 혼례를 행한 신랑, 신부에게 각각 차려주는 큰상, 폐백 음식, 이바지 음식 등이 기본이 된다(김영인 1989).

2. 혼례 관련 음식의 종류 및 함과 혼서지

1) 혼례 음식

현대에 와서 혼례 음식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폐백 음식이나 이바지 음식을 말하는데, 실제 혼례 음식이란 혼례 시 각각의 혼례 의례 절차에 따르는 음식이라고 사료된다. 즉 혼례 의례에 따르는 혼례 음식은 혼례 의식의 변천에 따라서 다소 변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혼례에 참여한 축하객의 접대용 잔치 음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윤숙경 등 1997). 전통 혼례 음식의 종류로는 납폐, 초례청, 주안상, 큰상, 결상, 임햇상, 폐백, 배별상, 이바지, 사관, 친궤, 근친의 친반 등(윤숙경 등 1997)이 있으며, 이 중 현대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폐백 음식과 이바지 음식, 상견 음식, 근친의 친반 등이라 사료되며, 이는 바쁜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최소 한도로 지키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 봉치떡

봉치떡은 납폐를 보내는 신랑집과 받는 신부집에서 각각 만든다(윤숙자 2006). 즉 함을 받을 때 준비하는 떡으로 혼수함을 혼주가 받아서 어머니에게 넘기면 시루(봉치떡)위에 올려놓고 마주 서서 절을 하는 풍습이다(강인희 1997, 윤숙자 2000). 예전에는 신랑과 신부집에서 모두 하였는데 최근에는 신부집에서만 하기도 한다(윤숙자 2006).

봉치떡은 찹쌀 3되, 붉은팥 1되로 시루떡 2켜만을 시루에 앉히고 대추 7개와 밤을 중앙에 놓아 준비한다(윤숙경 등 1997). 팥의 붉은 빛깔은 양(陽)이며 생기왕성이니 발전을 축복하고 액신(厄神)은 음이어서 양을 싫어하니 제액(際厄)과 벽사의 뜻이 있다(윤숙경 등 1997). 찹쌀 3되는 3을 많다는 숫자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찹쌀의 찰기는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별이 없다는 뜻이며 부부금술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윤숙자 2006). 대추는 장수와 생남을, 밤(栗)은 과자(破字)하면 서목(西木)이 된다(윤숙경 등 1997).

3) 폐백 음식

폐백은 신부가 시부모와 시댁의 여러 친지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의식으로 혼구고례라고도 말하며, 이 예를 올리기 위해 시부모에게 드릴 음식을 준비해 가는데 이 음식을 폐백 음식이라 한다(이연정 등 2003). 그러나 오늘날에는 혼례식 당일에 예식장의 폐백실에서 치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는 많이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김시향 1994).

폐백 음식에 있어 꿩이나 닭의 입에 붉은 고추를 물리는 것이나 대추를 던져주는 것은 생남을, 찹쌀과 대추를 무명실에 끼어 고이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금술을, 밤은 풍요로운 생산과 변함없이 굳게 살아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옛은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키지 말라는 친정어머니의 마음이다. 편포는 시어머니가 그 음식을 어루만지는 동작을 하는데 이는 며느리의 흉허물을 덮어 주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육포는 시어머니께 정성을 다해 봉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

다(이동후 1996).

4) 큰상

신랑, 신부를 대접하기 위해 높이 고이는 음식으로 고배상이라고도 한다. 큰상에 피어 올리는 음식은 과청류, 전파류, 생과실, 견과류, 벽류, 속육, 편육류, 전유어류, 건어물류, 육포와 어포류 등이다(김준희 등 2006). 이때 같은 줄에 배열한 음식은 모두 같은 높이로 하며 음식의 높이는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척도였으며 높을수록 성의가 많은 것으로 여긴 것이다(광주의 전통 음식 1997). 큰상의 음식은 잔치 때 만든 음식과 함께 신랑집으로 보내는 것을 장반 또는 상수라 하며, 송복(送福)의 의미로 여러 사람에게 나누도록 하는 관행이 있으며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갈 때 그 날의 음식을 선물로 돌려보내는 풍습도 있다(강인희 1996, 윤숙경 등 1997).

5) 예단 음식

이바지 음식이라고도 하며, 이는 신부 집안의 음식 솜씨를 시댁에 미리 선보인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신부댁 음식 솜씨인 맛, 간, 모양새 등에 대해 이바지 음식을 보고 시어머니가 알아서 새 며느리 음식 훈련에 참고로 하였다(윤숙자 2006). 또 새로 맷은 사돈댁에 친분을 돈돈히 하기 위해 드리는 음식이다(윤숙자·이미영 2002). 따라서 전래로부터 신랑·신부를 맞이 할 때 양가에서 마련한 큰상 음식이 각각 신랑·신부댁으로 상수(床需)라 하여 보내지던 풍속이 시대변천에 따라 그 번거로움을 줄이는 뜻에서 큰상차림이 차츰 살아져 가면서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물 음식으로 주고받는 풍속으로 이어지고 있다(윤숙경 등 1997). 즉 상수 봉송 돌린다는 용어가 이바지라는 음식으로 변했다고도 볼 수 있다(윤숙경 등 1997).

6) 함

혼인식 일주일 전에 행하는데 현대식으로는

결혼 전날 저녁에 보내는 것으로 혼례를 앞두고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채단과 혼서지(婚書紙)를 담아 보내는 상자(<http://100.naver.com/100.nhn?docid=186928>)로 옛날에는 하인이나 사람을 사서 보냈으나, 지금은 신랑의 친구나 가까운 친족이 직접 가지고 가기도 하며, 더욱 간소화 하여 최근에는 신랑 혼자만 함을 메고 신부집으로 가기도 한다.

7) 혼서지

혼서는 혼인의 문서로 혼서지는 가로 72cm, 세로 40cm 정도의 간지를 9칸으로 접어서 내용을 쓴다(윤숙자 2006). 혼서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내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어른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결손의 인사말로 글을 맺는다(윤숙자 2006).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부들이 전통 혼례 음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요리 학원이나 사회복지관, 성당, 교회, 절 등 주부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 종교적인 장소에 설문지를 배포한 이유는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진 주부들이 전통 혼례 음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7년 1월 6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3일간 30부의 예비 설문지를 요리 학원에 배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요리 학원 2곳과 복지관 2곳, 성당, 교회, 절 등 각각 1곳씩을 선정하여 2007년 1월 9일부터 2007년 1월 16일까지 8일간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주부들에게 350부를 배포하여 331부를 회수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및 조사내용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전통 혼례 음식 인지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연구로 인구통계적 11문항, 혼례 관련 음식의 필요성은 8문항으로 5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혼례 관련 음식에 관한 일반적 견해는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은 기존의 연구 (김경표 등 2002; 정혜경 등 1997; 윤숙자·이미영 2002)의 설문 형식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 중 2002년 김경표 등이 연구한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혼례 음식 관행과 태도에 관한 조사”에 관한 논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몇 가지 문항, 즉 종교별, 자녀 성별, 자녀 수, 출가한 자녀 성별, 출가한 자녀 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전통 혼례 음식 인지도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혼례 시 음식 장만에 대한 생각, 혼례 시 음식차림에 대한 생각은 ANOVA 분석을 하여 F 값으로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혼례 음식의 방향, 발전 전망 등의 사항에 대한 견해는 T -test 및 χ^2 -test로 분석하고 빈도와 백분율과 Pearson 값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표 1> 설문지의 구성과 조사내용

항목	내용	문항수
인구통계적	지역, 연령, 직업, 학력, 수입 정도, 가족 구성, 종교, 자녀 성별, 자녀 수, 출가한 자녀 성별, 출가한 자녀 수	11문항
혼례 관련 음식의 필요성	혼례 음식, 폐백 음식, 예단 음식, 봉치떡, 신부 큰상, 시부모 큰상, 함, 혼례 서지	8문항
혼례 관련 음식에 관한 일반적 견해	혼례 음식, 혼례 음식 상차림, 혼례 음식 장만, 혼례 시 음식 차림, 혼례 음식의 전수와 보존, 혼례 음식과 예식 절차, 폐백 풍습 실행 절차, 혼례 풍습에 대한 견해, 혼례 풍습 실행 절차, 혼례 풍습 중요 순위도, 혼례 음식과 혼례 풍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11문항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산·경남 지역 20대 이상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 혼례 음식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가 70.4%를 차지하였고,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가 29.6%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9.9%,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54.4%,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60.7%, 수입 정도는 200만원대가 31.4%, 가족 구성은 핵가족 72.5%, 종교별로는 불교가 40.5%, 자녀의 성별은 아들과 딸을 함께 가진 주부가 33.2%, 자녀 수는 2명을 가진 주부가 41.4%, 출가한 자녀의 성별은 출가한 자녀가 없는 주부가 90.3%, 출가한 자녀 수에 있어서는 출가한 자녀가 없는 주부가 90.0%로 나타났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	명(%)
거주 지역	부산	233(70.4)
	경남	98(29.6)
연령	20대	50(15.1)
	30대	92(27.8)
	40대	99(29.9)
	50대 이상	90(27.2)
직업	전업 주부	111(33.5)
	직장인	180(54.4)
	사업	14(4.2)
	기타	26(7.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5(4.5)
	고졸	115(34.7)
	대학 이상	201(60.7)

〈표 2〉 계속

	문항	명(%)
수입	100만원 미만	64(19.3)
	100만원대	95(28.7)
	200만원대	104(31.4)
	300만원 이상	68(20.5)
가족 구성	부부만	56(16.9)
	핵가족	240(72.5)
	확대가족	35(10.6)
종교	무교	68(20.5)
	불교	134(40.5)
	기독교	90(27.2)
	천주교	35(10.6)
	기타	4(1.2)
자녀의 성별	자녀가 없음	100(30.2)
	딸만 있음	55(16.6)
	아들만 있음	66(19.9)
	아들과 딸이 있음	110(33.2)
자녀 수	자녀가 없음	104(31.4)
	1명	62(18.7)
	2명	137(41.4)
	3명 이상	28(8.5)
출가한 자녀의 성별	출가한 자녀 없음	299(90.3)
	딸만 출가	13(3.9)
	아들만 출가	9(2.7)
	출가한 아들과 딸이 있음	10(3.0)
출가한 자녀 수	출가한 자녀가 없음	298(90.0)
	1명	11(3.3)
	2명	16(4.8)
	3명 이상	6(1.8)

2 혼례 관련 음식의 필요성

혼례 음식, 폐백 음식, 이바지 음식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1. 필요악이다, 2. 필요치 않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반드시 필요하다 등의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산 지역 주부들이 경남 지역 주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혼례 음식, 폐백 음식, 예단 음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에 따라서 혼례 관련 음식의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혼례 음식($p<0.05$)과 폐백 음식($p<0.01$)에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가 높게 평가하였다. 직업별로는 예단 음식($p<0.05$)의 필요성에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났으며 사업 또는 기타의 직업을 가진 주부들이 전업주부나 직장인보다 예단 음식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학력별로는 혼례 음식($p<0.01$), 폐백 음식($p<0.001$), 예단 음식($p<0.01$)의 필요성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이나 고졸의 주부들보다도 중졸의 주부들이 대체로 혼례관련 음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로 보아 학력이 낮을 수록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2002년 김경묘 등의 연구에 있어서는 폐백과 예단 음식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혼례 음식, 폐백 음식, 예단

〈표 3〉 혼례 관련 음식의 필요성

(M±S.D)

항목	구분	혼례 음식	폐백 음식	예단 음식
지역	부산	3.10±0.86	3.11±0.90	2.88±0.93
	경남	2.68±0.84	2.55±0.82	2.42±0.73
	T-value	4.020***	5.232***	4.375***
연령	20대	2.94±0.79	2.90±0.70	2.78±0.73
	30대	2.78±0.79	2.65±0.74	2.55±0.71
	40대	3.02±0.89	3.01±0.98	2.79±0.96
	50대 이상	3.14±0.95	3.19±1.02	2.87±1.05
직업	F-value	2.75*	5.67**	2.04
	전업주부	2.99±0.91	2.99±0.99	2.86±0.97
	직장인	2.93±0.86	2.87±0.85	2.61±0.84
	사업	3.21±0.97	3.00±1.10	2.93±0.91
	기타	3.12±0.76	3.19±0.89	3.08±0.84
	F-value	0.754	1.117	3.332*

〈표 3〉 계속

(M±S.D)

항목	구분	흔례 음식	폐백 음식	예단 음식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47±0.83	3.67±0.72	3.47±0.74
	고졸	3.09±0.83	3.13±0.92	2.78±0.95
	대졸 이상	2.88±0.88	2.78±0.88	2.67±0.85
	F-value	4.687**	10.796***	5.853**
수입	100만 원 미만	3.09±0.77	3.09±0.83	2.80±0.89
	100만 원대	2.85±0.82	2.79±0.82	2.65±0.80
	200만 원대	2.97±0.86	2.96±0.93	2.78±0.90
	300만 원 이상	3.04±1.04	2.99±1.07	2.76±1.02
	F-value	1.151	1.532	0.462
가족구성	부부만	2.89±0.92	2.84±0.84	2.64±0.84
	핵가족	2.98±0.87	2.95±0.93	2.76±0.90
	확대가족	3.11±0.83	3.03±0.92	2.77±1.00
	F-value	0.686	0.526	0.419
종교	무교	2.87±0.84	2.75±0.81	2.66±0.74
	불교	3.19±0.84	3.22±0.85	2.92±0.93
	기독교	2.68±0.79	2.67±0.87	2.54±0.86
	천주교	3.20±1.05	2.94±1.11	2.74±1.06
	기타	2.50±0.57	3.00±1.41	2.75±0.50
	F-value	6.001***	6.317***	2.547*
자녀의 성별	자녀가 없음	2.91±0.78	2.82±0.71	2.69±0.72
	딸만 있음	2.64±0.82	2.64±0.86	2.55±0.87
	아들만 있음	3.15±0.94	3.02±1.03	2.79±1.00
	아들과 딸이 있음	3.10±0.89	3.16±0.98	2.86±0.98
	F-value	4.706**	5.083**	1.724
자녀 수	자녀가 없음	2.91±0.79	2.85±0.73	2.68±0.74
	1명	2.90±0.88	2.85±0.90	2.69±0.93
	2명	3.01±0.91	2.99±0.98	2.77±0.93
	3명 이상	3.18±0.98	3.29±1.15	2.93±1.18
	F-value	0.904	1.994	0.666
출가한 자녀의 성별	출가한 자녀 없음	2.98±0.85	2.91±0.88	2.70±0.87
	딸만 출가	2.92±0.86	3.23±0.92	3.00±0.81
	아들만 출가	2.67±1.22	2.89±1.45	2.78±1.20
	출가한 아들, 딸이 있음	3.10±1.28	3.60±1.26	3.60±1.17
	F-value	0.460	2.303	3.672*
출가한 자녀의 수	출가한 자녀 없음	2.98±0.85	2.91±0.87	2.70±0.87
	1명	2.73±0.90	3.36±1.12	3.00±0.89
	2명	3.13±1.14	3.19±1.16	3.19±1.10
	3명 이상	2.83±1.32	3.00±1.54	3.00±1.41
	F-value	0.501	1.268	1.961
합계		2.98±0.87	2.94±0.91	2.74±0.90

리커트 척도: 1=필요악이다, 2=필요치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반드시 필요하다.

*p<0.05, **p<0.01, ***p<0.001.

음식 모두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의 연구에서는 수입별로 혼례 음식과 폐백 음식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입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구성에 있어서 전자의 연구에서 혼례 음식에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교별로는 혼례 음식 ($p<0.001$), 폐백 음식($p<0.001$), 예단 음식($p<0.05$)의 필요성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불교가 폐백 음식, 예단 음식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종교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으며, 천주교는 혼례 음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보였다. 자녀의 성별에 있어서는 혼례 음식($p<0.01$), 폐백 음식($p<0.01$)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례 음식의 경우에는 아들만 있는 경우가 높게 평가되었고, 폐백 음식의 경우에는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에 높게 평가되었다. 출가한 자녀의 성별에서는 예단 음식($p<0.05$)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출가한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에 예단 음식이 필요성에 높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조사에서 1997년 정혜경 등의 연구인 “우리나라 혼례 음식 인지도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는 폐백 음식이 혼례 음식의 인지도보다 높은 편이었

고, 2002년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혼례 음식 관행과 태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2007년 현재와 같이 혼례 음식이 폐백 음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9년 “가정 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므로 인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우리의 혼례 음식 또한 그와 더불어 더욱 고급화, 허례 허식화 된 것에 그 원인(하홍국 2000)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혼례 관련 음식 상차림 및 함과 혼서지의 필요성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혼례 관련 음식 상차림 및 함과 혼서지의 필요성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산 지역 주부들이 경남 지역 주부들에 비해 봉치떡, 신부 큰상, 시부모 큰상, 함, 혼서지 등에 높은 평가를 보였고, 연령별로는 봉치떡($p<0.01$), 신부 큰상($p<0.01$), 시부모 큰상($p<0.05$), 혼서지($p<0.01$)의 필요성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함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봉치떡과 신부 큰상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40대와 50대가, 시부모 큰상에 있어서는 20대와 40대가, 혼서지에 있어서는 20대와 50대가 높게 평가하였다. 직업별로는 혼서지($p<0.05$)에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타의 직업

〈표 4〉 혼례 관련 음식 상차림 및 함과 혼서지의 필요성

(M±S.D)

항목	구분	봉치떡	신부 큰상	시부모 큰상	함	혼서지
지역	부산	2.79±0.87	2.74±0.87	2.76±0.83	2.88±0.86	2.96±0.81
	경남	2.36±0.66	2.36±0.69	2.36±0.66	2.49±0.79	2.44±0.73
	T-value	4.45***	3.87***	4.23***	3.81***	5.50***
연령	20대	2.68±0.68	2.68±0.74	2.76±0.71	2.80±0.83	2.90±0.73
	30대	2.40±0.68	2.38±0.73	2.41±0.77	2.59±0.81	2.57±0.76
	40대	2.77±0.87	2.76±0.89	2.73±0.83	2.81±0.85	2.86±0.85
	50대 이상	2.81±0.83	2.71±0.90	2.71±0.83	2.87±0.90	2.94±0.85
	F-value	4.57**	3.86**	3.46*	1.87	3.92**
직업	전업 주부	2.76±0.91	2.63±0.85	2.64±0.81	2.77±0.83	2.86±0.88
	직장인	2.58±0.76	2.58±0.84	2.58±0.81	2.72±0.86	2.74±0.79
	사업	2.50±0.94	2.71±0.72	2.64±0.63	2.71±0.72	2.57±0.75
	기타	2.96±0.82	2.88±0.86	3.04±0.77	3.00±0.93	3.19±0.69
	F-value	2.38	1.01	2.42	0.82	2.87*

〈표 4〉 계속

(M±S.D.)

항목	구분	봉치떡	신부 큰상	시부모 큰상	합	흔서지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27±0.70	3.20±0.77	3.13±0.74	3.27±0.88	3.20±0.77
	고졸	2.74±0.88	2.75±0.88	2.74±0.79	2.84±0.88	2.97±0.81
	대졸 이상	2.58±0.79	2.52±0.80	2.55±0.80	2.68±0.82	2.68±0.81
	F-value	5.57**	6.53**	5.09**	4.20*	6.62**
수입	100만원 미만	2.84±0.82	2.80±0.87	2.81±0.87	2.73±0.87	2.92±0.78
	100만원 대	2.60±0.72	2.47±0.75	2.48±0.71	2.64±0.82	2.71±0.77
	200만원 대	2.62±0.84	2.65±0.85	2.69±0.81	2.81±0.84	2.80±0.82
	300만원 이상	2.66±0.98	2.65±0.89	2.62±0.84	2.88±0.89	2.85±0.91
	F-value	1.28	1.97	2.33	1.19	0.97
가족구성	부부만	2.57±0.78	2.39±0.65	2.52±0.73	2.80±0.86	2.89±0.84
	핵가족	2.67±0.83	2.66±0.87	2.66±0.83	2.75±0.85	2.78±0.82
	확대가족	2.80±0.93	2.77±0.84	2.69±0.75	2.74±0.85	2.89±0.79
	F-value	0.80	2.91	0.78	0.08	0.64
종교	무교	2.63±0.77	2.72±0.82	2.75±0.79	2.71±0.83	2.74±0.68
	불교	2.85±0.86	2.77±0.85	2.75±0.81	2.99±0.84	3.04±0.83
	기독교	2.39±0.78	2.39±0.78	2.39±0.69	2.53±0.79	2.47±0.72
	천주교	2.71±0.82	2.54±0.81	2.69±0.90	2.69±0.90	3.00±0.90
	기타	2.75±0.95	2.50±1.29	2.25±1.25	2.00±0.81	2.25±1.25
	F-value	4.32**	3.12*	3.50**	5.04***	8.19***
자녀 성별	자녀 무	2.60±0.68	2.58±0.71	2.63±0.74	2.69±0.81	2.79±0.79
	딸만	2.47±0.85	2.38±0.85	2.44±0.78	2.62±0.80	2.64±0.91
	아들만	2.67±0.93	2.64±0.93	2.62±0.83	2.89±0.87	2.76±0.82
	아들·딸	2.82±0.88	2.79±0.86	2.76±0.84	2.82±0.90	2.94±0.79
	F-value	2.42	3.09*	2.05	1.43	1.80
자녀 수	자녀 무	2.59±0.67	2.56±0.72	2.64±0.74	2.67±0.81	2.80±0.79
	1명	2.60±0.81	2.63±0.92	2.60±0.81	2.81±0.76	2.71±0.87
	2명	2.73±0.89	2.67±0.89	2.66±0.82	2.76±0.88	2.82±0.81
	3명 이상	2.79±1.10	2.68±0.86	2.64±0.95	3.00±1.01	2.96±0.88
	F-value	0.90	0.39	0.07	1.15	0.65
출가 자녀 성별	출가 무	2.65±0.82	2.62±0.84	2.63±0.81	2.75±0.82	2.80±0.81
	딸만	2.85±0.80	2.54±0.66	2.69±0.63	2.62±0.76	2.92±0.64
	아들만	2.33±0.86	2.56±1.01	2.44±0.88	2.78±1.20	2.33±0.86
	아들·딸	3.30±1.16	3.10±0.73	3.00±0.94	3.40±1.26	3.30±0.94
	F-value	2.68*	1.12	0.86	2.03	2.31
출가 자녀 수	출가 무	2.64±0.81	2.62±0.85	2.63±0.81	2.74±0.82	2.80±0.81
	1명	2.91±1.04	2.82±0.75	2.82±0.60	3.09±0.94	2.82±0.75
	2명	2.88±0.95	2.75±0.77	2.75±0.68	3.00±1.15	2.94±0.85
	3명 이상	2.67±1.21	2.33±0.81	2.50±1.37	2.33±1.21	2.67±1.21
	F-value	0.70	0.54	0.34	1.49	0.19
합계		2.66±0.83	2.63±0.84	2.64±0.80	2.76±0.85	2.81±0.82

리커트 척도: 1=필요악이다, 2=필요치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반드시 필요하다.

*p<0.05, **p<0.01, ***p<0.001.

을 가진 경우가 높게 평가하였다. 학력별로는 혼례 관련 음식 상차림($p<0.01$)과 함($p<0.05$)과 혼서지($p<0.01$)에 대하여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혼례 관련 음식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봉치떡($p<0.01$), 신부 큰상($p<0.05$), 시부모 큰상($p<0.01$), 함($p<0.001$)과 혼서지($p<0.001$)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타가 봉치떡에, 불교가 신부 큰상과 시부모 큰상 및 함에, 불교와 천주교가 혼서지에 높게 평가하였다. 자녀의 성별에 있어서는 신부 큰상($p<0.05$)에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주부가 신부 큰상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다. 큰상은 “경상도 지역의 전통 혼례 음식 문화”에서 이용율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가짓수도 많이 생략되고 있는 것으로(윤숙경 1997) 나타났으나,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혼례 음식 관행과 태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봉치떡, 함, 혼서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김경묘 등 2002)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함과 혼서지에 높은 평가를 보였다. 이는 IMF 전후에 일부 부유층이 부의 과시처럼 혼례 음식을 장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 가장 전통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함과 혼

서지에 높은 평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혼례 음식 장만에 대한 생각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혼례 음식 장만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문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6.6%로 나타났으며, ‘손수 장만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8.7%, ‘현금으로 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9.0%, ‘출장요리사를 이용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0.9%, 기타가 4.8%로 나타났다. 종교별($p<0.05$)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무교가 ‘주문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4.1%, 불교가 ‘주문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1.8%, 기독교가 ‘주문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7.8%, 천주교는 ‘손수 장만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5.7%로 높게 평가되었다. 자녀 성별, 자녀 수, 출가한 자녀 성별, 출가한 자녀 수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 성별에 있어 딸만 있는 주부는 ‘주문하겠다’가 38.2%, 아들만 있는 주부가 ‘손수 장만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7.9%, 아들과 딸이 있는 주부가 ‘주문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1.8%로 나타났다. 자녀 수에 있어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주부가 ‘손수 장만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5.7%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 사료된다. 출가한 자녀 성별에 있어서는 ‘주문하겠다’라는 응답에 있

<표 5> 혼례 음식 장만에 대한 생각

N(%)

구분	손수장만	주문	출장요리사 이용	현금	기타	합계	Statistics
연령	20대	14(28.0)	23(46.0)	5(10.0)	7(14.0)	1(2.0)	50(100)
	30대	28(30.4)	35(38.0)	9(9.8)	18(19.6)	2(2.2)	92(100)
	40대	25(25.3)	37(37.4)	10(10.1)	19(19.2)	8(8.1)	99(100)
	50대 이상	28(31.1)	26(28.9)	12(13.3)	19(21.1)	5(5.6)	90(100)
	소계	95(28.7)	121(36.6)	36(10.9)	63(19.0)	16(4.8)	331(100)
직업	전업주부	31(27.9)	36(32.4)	16(14.4)	23(20.7)	5(4.5)	110(100)
	직장인	50(27.8)	75(41.7)	14(19.6)	34(34.3)	7(3.9)	180(100)
	사업	3(21.4)	5(35.7)	2(14.3)	3(21.4)	1(7.1)	14(100)
	기타	11(42.3)	5(19.2)	4(15.4)	3(11.5)	3(11.5)	26(100)
	소계	95(28.7)	121(36.6)	36(10.9)	63(19.0)	16(4.8)	331(100)

〈표 5〉 계속

		N(%)						
구분		손수장만	주문	출장요리사 이용	현금	기타	합계	Statistics
최종 학력	중졸 이하	6(40.0)	6(40.0)	1(6.7)	1(6.7)	1(6.7)	15(100)	$\chi^2=6.64$ $df=8$ $p=0.575$
	고졸	30(26.1)	43(37.4)	11(9.6)	22(19.1)	9(5.6)	115(100)	
	대학 이상	59(29.4)	72(35.8)	24(11.9)	40(19.9)	6(3.0)	201(100)	
	소계	95(28.7)	121(36.6)	36(10.9)	63(19.0)	16(4.8)	331(100)	
수입	100만원 미만	21(32.8)	22(34.4)	5(7.8)	12(18.8)	4(6.3)	64(100)	$\chi^2=12.44$ $df=12$ $p=0.411$
	100만원 대	24(25.3)	40(42.1)	7(7.4)	22(23.2)	2(2.1)	95(100)	
	200만원 대	27(26.0)	34(32.7)	18(17.3)	19(18.3)	6(5.8)	104(100)	
	300만원 이상	23(33.8)	25(36.8)	6(8.8)	10(14.7)	4(5.9)	68(100)	
	소계	95(28.7)	121(36.6)	36(10.9)	63(19.0)	16(4.8)	331(100)	
가족 구성	부부만	16(28.6)	26(46.4)	3(5.4)	11(19.6)	0(0.0)	56(100)	$\chi^2=11.60$ $df=8$ $p=0.170$
	핵가족	72(30.0)	81(33.8)	28(11.7)	47(19.6)	12(5.0)	240(100)	
	확대가족	7(20.0)	14(40.0)	5(14.3)	5(14.3)	4(11.4)	35(100)	
	소계	95(28.7)	121(36.6)	36(10.9)	63(19.0)	16(4.8)	331(100)	
종교	무교	15(22.1)	30(44.1)	9(13.2)	12(17.6)	2(2.9)	68(100)	$\chi^2=26.58$ $df=16$ $p=0.046$
	불교	41(30.6)	56(41.8)	11(8.2)	18(13.4)	8(6.0)	134(100)	
	기독교	21(23.3)	25(27.8)	11(12.2)	27(30.0)	6(6.7)	90(100)	
	천주교	16(45.7)	8(22.9)	5(14.3)	6(17.1)	0(0.0)	35(100)	
	기타	2(50.0)	2(50.0)	0(0.0)	0(0.0)	0(0.0)	4(100)	
	소계	95(28.7)	121(36.6)	36(10.9)	63(19.0)	16(4.8)	331(100)	
자녀 성별	자녀 무	30(30.0)	44(44.0)	8(8.0)	14(14.0)	4(4.0)	100(100)	$\chi^2=15.55$ $df=12$ $p=0.213$
	딸만	12(21.8)	21(38.2)	4(7.3)	15(27.3)	3(5.5)	55(100)	
	아들만	25(37.9)	21(31.8)	8(12.1)	11(16.7)	1(1.5)	66(100)	
	아들, 딸	28(25.5)	35(31.8)	16(14.5)	23(20.9)	8(7.3)	110(100)	
	소계	95(28.7)	121(36.6)	36(10.9)	63(19.0)	16(4.8)	331(331)	
자녀 수	자녀 무	31(29.8)	45(43.3)	8(7.7)	16(15.4)	4(3.8)	104(100)	$\chi^2=9.72$ $df=12$ $p=0.640$
	1명	20(32.3)	22(35.5)	6(9.7)	13(21.0)	1(1.6)	62(100)	
	2명	34(24.8)	46(33.6)	19(13.9)	29(21.2)	9(6.6)	137(100)	
	3명 이상	10(35.7)	7(28.6)	3(10.7)	5(17.9)	2(7.1)	28(100)	
	소계	95(28.7)	121(36.6)	36(10.9)	63(19.0)	16(4.8)	331(100)	
출가 성별	출가 무	89(29.8)	108(36.1)	33(11.0)	55(18.4)	14(4.7)	299(100)	$\chi^2=9.34$ $df=12$ $p=0.674$
	딸만	3(23.1)	4(30.8)	1(7.7)	3(23.1)	2(15.4)	13(100)	
	아들만	2(22.2)	4(44.4)	0(0.0)	2(33.3)	0(0.0)	9(100)	
	아들, 딸	1(10.0)	5(50.0)	2(20.0)	2(20.0)	0(0.0)	10(100)	
	소계	95(28.7)	121(36.6)	36(10.9)	63(19.0)	16(4.8)	331(100)	
출가 수	출가 무	89(29.9)	108(36.2)	33(11.1)	54(18.1)	14(4.7)	298(100)	$\chi^2=8.91$ $df=12$ $p=0.710$
	1명	2(18.2)	5(45.5)	0(0.0)	2(18.2)	2(18.2)	11(100)	
	2명	2(12.5)	6(37.5)	1(6.3)	7(43.8)	0(0.0)	16(100)	
	3명 이상	2(33.3)	2(33.3)	2(33.2)	0(0.0)	0(0.0)	6(100)	
	소계	95(28.7)	121(36.6)	36(10.9)	63(19.0)	16(4.8)	331(100)	
합계		95(28.7)	121(36.6)	36(10.9)	63(19.0)	16(4.8)	331(100)	

*p<0.05.

어 자녀가 없는 주부가 36.1%, 딸만 가진 주부가 30.8%, 아들만 가진 주부가 44.4%, 아들과 딸이 있는 주부가 50.0%로 나타났다. 출가 자녀 수에 있어서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주부가 '손수 장만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3.3%, '주문하겠단다'가 33.3%로 나타났으며, 전자는 경제적 부담과 다수의 경험으로 인한 혼례 음식을 손수 장만하는 것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후자는 다수의 경험으로 인한 주부들의 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5. 혼례 시 음식 차림에 대한 생각

혼례 시 음식 차림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은 혼례 시 음식 차림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양가 상의 하에 간소화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6.2%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면 만족한다'가 24.8%,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다'가 9.1%, '중요하지 않다'가 8.5%, '화려해야 한다'가 1.5%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p<0.05$), 종교별($p<0.01$)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가 상의 하에 간소화 한다'의 응답 중 핵가족이 57.9%, 확대가족이 57.1%로 부부만 있는 가정이 48.2%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양가 상의 하에 간소화 한다'의 응답 중 불교가 64.2%, 천주교가 54.3%, 무교가 52.9%, 기타가 50.0%, 기독교가

47.8%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성별, 자녀 수, 출가한 자녀 성별, 출가한 자녀 수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양가 상의 하에 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 딸만 가진 주부가 63.6%, 3명의 자녀를 가진 주부가 67.9%, 출가한 자녀의 성별에 있어 출가한 자녀가 없는 주부가 56.5%, 출가한 자녀가 3명 이상인 주부가 66.7%로 나타났다.

6. 혼례 음식의 전수와 보존에 대한 견해

혼례 음식의 전수와 보존에 대한 견해를 나타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은 앞으로의 혼례 음식 전망에 대하여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가 46.8%로 나타났으며, '유지될 것이다'가 21.1%, '조금씩 발전할 것이다'가 13.3%, '생략되어질 것이다'가 8.8%, '모르겠다'가 8.2%, '매우 발전할 것이다'가 1.8%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학력별($p<0.05$)로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라는 응답 중 대졸 이상이 53.7%, 고졸이 39.1%, 중졸 이하가 13.3%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다. 이에 반해 중졸 이하가 '조금씩 발전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0.0%로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 자녀 성별, 자녀 수, 출가한 자녀 성별, 출가한 자녀 수

<표 6> 혼례시 음식 차림에 대한 생각

구분	화려해야 함	보통이면 만족	양가 상의하에 간소화함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됨	중요하지 않음	N(%)	
						합계	Statistics
연령	20대	2(4.0)	16(32.0)	22(44.0)	6(12.0)	50(100)	
	30대	0(0.0)	26(28.3)	50(54.3)	7(7.6)	92(100)	$\chi^2=11.31$
	40대	2(2.0)	18(18.2)	59(59.6)	10(10.1)	99(100)	$df=12$
	50대 이상	1(1.1)	22(24.4)	55(61.1)	7(7.8)	90(100)	$p=0.503$
	소계	5(1.5)	82(24.8)	186(56.2)	30(9.1)	331(100)	
직업	전업주부	1(0.9)	31(27.9)	63(56.8)	5(4.5)	111(100)	
	직장인	3(1.7)	37(20.6)	102(56.7)	21(11.7)	180(100)	$\chi^2=13.66$
	사업	0(0.0)	4(28.6)	8(57.1)	2(14.3)	14(100)	$df=12$
	기타	1(3.8)	10(38.5)	13(50.0)	2(7.7)	26(100)	$p=0.323$
	소계	5(1.5)	82(24.8)	186(56.2)	30(9.1)	331(100)	

〈표 6〉 계속

		N(%)						
구분		화려해야 함 만족	보통이면 만족	양가 상의하여 간소화함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됨	중요하지 않음	합계	Statistics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6.7)	4(26.7)	7(46.7)	2(13.3)	1(6.7)	15(100)	$\chi^2=11.30$ $df=8$ $p=0.185$
	고졸	3(2.6)	23(20.0)	70(60.9)	13(11.3)	6(5.2)	115(100)	
	대졸 이상	1(0.5)	55(27.4)	109(54.2)	15(7.5)	21(10.4)	201(100)	
	소계	5(1.5)	82(24.8)	186(56.2)	30(9.1)	28(8.5)	331(100)	
수입	100만원 미만	1(1.6)	13(20.3)	35(54.7)	11(17.2)	4(6.3)	64(100)	$\chi^2=9.37$ $df=12$ $p=0.671$
	100만원 대	2(2.1)	22(23.2)	55(53.4)	7(7.4)	9(9.5)	95(100)	
	200만원 대	1(1.0)	31(29.8)	56(58.4)	6(5.8)	10(9.6)	104(100)	
	300만원 이상	1(1.5)	16(23.5)	40(38.2)	6(8.8)	5(7.4)	68(100)	
	소계	5(1.5)	82(24.8)	186(56.2)	30(9.1)	28(8.5)	331(100)	
가족 구성	부부만	0(0.0)	13(23.2)	27(48.2)	5(8.9)	11(19.6)	56(100)	$\chi^2=17.13$ $df=8$ $p=0.029$
	핵가족	4(1.7)	64(26.7)	139(57.9)	19(7.9)	14(5.8)	240(100)	
	확대가족	1(2.9)	5(14.3)	20(57.1)	6(17.1)	3(8.6)	35(100)	
	소계	5(1.5)	82(24.8)	186(56.2)	30(9.1)	28(8.5)	331(100)	
종교	무교	1(1.5)	19(27.9)	36(52.9)	9(13.2)	3(4.4)	68(100)	$\chi^2=32.72$ $df=16$ $p=0.008$
	불교	2(1.5)	27(20.1)	86(64.2)	8(6.0)	11(8.2)	134(100)	
	기독교	0(0.0)	28(31.1)	43(47.8)	7(7.8)	12(13.3)	90(100)	
	천주교	1(2.9)	8(22.9)	19(54.3)	5(14.3)	2(5.7)	35(100)	
	기타	2(25.0)	0(0.0)	2(50.0)	1(25.0)	0(0.0)	4(100)	
	소계	5(1.5)	82(24.8)	186(56.2)	30(9.1)	28(8.5)	331(100)	
자녀 성별	자녀 무	2(2.0)	27(27.0)	50(50.0)	8(8.0)	13(13.0)	100(100)	$\chi^2=10.65$ $df=12$ $p=0.559$
	딸만	0(0.0)	12(21.8)	35(63.6)	5(9.1)	3(5.5)	55(100)	
	아들만	0(0.0)	17(25.8)	36(54.5)	9(13.6)	4(6.1)	66(100)	
	아들, 딸	3(2.7)	26(23.6)	65(59.1)	8(7.3)	8(7.3)	110(100)	
	소계	5(1.5)	82(24.8)	186(56.2)	30(9.1)	28(8.5)	331(331)	
자녀 수	자녀 무 1명	2(1.9)	28(26.9)	52(50.0)	9(8.7)	13(12.5)	104(100)	$\chi^2=13.07$ $df=12$ $p=0.364$
	2명	0(0.0)	18(29.0)	35(56.5)	7(11.3)	2(3.2)	62(100)	
	3명 이상	3(2.2)	31(22.6)	80(58.4)	10(7.3)	13(9.5)	137(100)	
	소계	5(1.5)	82(24.8)	186(56.2)	30(9.1)	28(8.5)	331(100)	
	합계	5(1.5)	82(24.8)	186(56.2)	30(9.1)	28(8.5)	331(100)	
출가 자녀 성별	출가 무	5(1.7)	71(23.7)	169(56.5)	28(9.4)	26(8.7)	299(100)	$\chi^2=7.39$ $df=12$ $p=0.831$
	딸만	0(0.0)	5(38.5)	7(53.8)	0(0.0)	1(7.7)	13(100)	
	아들만	0(0.0)	4(44.4)	5(55.6)	0(0.0)	0(0.0)	9(100)	
	아들, 딸	0(0.0)	2(20.0)	5(50.0)	2(20.0)	1(10.0)	10(100)	
	소계	5(1.5)	82(24.8)	186(56.2)	30(9.1)	28(8.5)	331(100)	
출가 자녀 수	출가 무 1명	5(1.7)	70(23.5)	169(56.7)	28(9.4)	26(8.7)	298(100)	$\chi^2=8.91$ $df=12$ $p=0.710$
	2명	0(0.0)	6(54.5)	5(45.5)	0(0.0)	0(0.0)	11(100)	
	3명 이상	0(0.0)	5(31.3)	8(50.0)	1(6.3)	2(12.5)	16(100)	
	소계	5(1.5)	82(24.8)	186(56.2)	30(9.1)	28(8.5)	331(100)	
	합계	5(1.5)	82(24.8)	186(56.2)	30(9.1)	28(8.5)	331(100)	

*p<0.05, **p<0.01.

〈표 7〉 혼례 음식의 전수와 보존에 대한 견해

N(%)

구분	매우 발전할 것이다	조금씩 발전할 것이다	유지될 것 이다	조금씩 사라질 것 이다	생략되어 없어질 것이다	모르겠다	합계	Statistics
연령	20대	0(0.0)	5(10.0)	5(10.0)	28(56.0)	3(6.0)	9(18.0)	50(100)
	30대	0(0.0)	10(10.9)	20(21.7)	50(54.3)	7(7.6)	5(5.4)	92(100)
	40대	3(3.0)	15(15.2)	20(20.2)	45(45.5)	10(10.1)	6(6.1)	99(100)
	50대 이상	3(3.3)	14(15.6)	25(27.8)	32(35.6)	9(10.0)	7(7.8)	90(100)
소계		6(1.8)	44(13.3)	70(21.1)	155(46.8)	29(8.8)	27(8.2)	331(100)
직업	전업주부	2(1.8)	15(13.5)	28(25.2)	49(44.1)	11(9.9)	6(5.4)	111(100)
	직장인	3(1.7)	19(10.6)	37(20.6)	91(50.6)	17(9.4)	13(7.2)	180(100)
	사업	0(0.0)	5(35.7)	2(14.3)	4(28.6)	1(7.1)	2(14.3)	14(100)
	기타	1(3.8)	5(19.2)	3(11.5)	11(42.3)	0(0.0)	6(23.1)	26(100)
소계		6(1.8)	44(13.3)	70(21.1)	155(46.8)	29(8.8)	27(8.2)	331(1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0(0.0)	3(20.0)	5(33.3)	2(13.3)	1(6.7)	4(26.7)	15(100)
	고졸	3(2.6)	19(16.5)	26(22.6)	45(39.1)	13(11.3)	9(7.8)	115(100)
	대학 이상	3(1.5)	22(10.9)	39(19.4)	108(53.7)	15(7.5)	14(7.0)	201(100)
	소계	6(1.8)	44(13.3)	70(21.1)	155(46.8)	29(8.8)	27(8.2)	331(100)
수입	100만원 미만	2(3.1)	11(17.2)	13(20.3)	26(40.6)	2(3.1)	10(15.6)	64(100)
	100만원 대	1(1.1)	10(10.5)	16(16.8)	51(53.7)	10(10.5)	7(7.4)	95(100)
	200만원 대	1(1.0)	16(15.4)	27(26.0)	41(39.4)	11(10.6)	8(7.7)	104(100)
	300만원 이상	2(2.9)	7(10.3)	14(20.6)	37(54.4)	6(8.8)	2(2.9)	68(100)
소계		6(1.8)	44(13.3)	70(21.1)	155(46.8)	29(8.8)	27(8.2)	331(100)
가족 구성	부부만	2(3.6)	8(14.3)	10(17.9)	30(53.6)	3(5.4)	3(5.4)	56(100)
	핵가족	3(1.3)	31(12.9)	54(22.5)	107(44.6)	23(9.6)	22(8.2)	240(100)
	확대가족	1(2.9)	5(14.3)	6(17.1)	18(51.4)	3(8.6)	2(5.7)	35(100)
	소계	6(1.8)	44(13.3)	70(21.1)	155(46.8)	29(8.8)	27(8.2)	331(100)
종교	무교	2(2.9)	7(10.3)	17(25.0)	34(50.0)	4(5.9)	4(5.9)	68(100)
	불교	2(1.5)	20(14.9)	23(17.2)	68(50.7)	9(6.7)	12(9.0)	134(100)
	기독교	1(1.1)	11(12.2)	19(21.1)	34(37.8)	15(16.7)	10(11.1)	90(100)
	천주교	1(2.9)	6(17.1)	9(25.7)	17(48.6)	1(2.9)	1(2.9)	35(100)
	기타	0(0.0)	0(0.0)	2(50.0)	2(50.0)	0(0.0)	0(0.0)	4(100)
소계		6(1.8)	44(13.3)	70(21.1)	155(46.8)	29(8.8)	27(8.2)	331(100)
자녀 성별	자녀 무	1(1.0)	10(10.0)	16(16.0)	57(57.0)	5(5.0)	11(11.0)	100(100)
	딸만	0(0.0)	8(14.5)	10(18.2)	26(47.3)	6(10.9)	5(9.1)	55(100)
	아들만	1(1.5)	11(16.7)	14(21.2)	28(42.4)	8(12.1)	4(6.1)	66(100)
	아들, 딸	4(3.6)	15(13.6)	30(27.3)	44(40.0)	10(9.1)	7(6.4)	110(100)
소계		6(1.8)	44(13.3)	70(21.1)	155(46.8)	29(8.8)	27(8.2)	331(331)
자녀 수	자녀 무	1(1.0)	11(10.6)	18(17.3)	57(54.8)	5(4.8)	12(11.5)	104(100)
	1명	1(1.6)	9(14.5)	16(25.8)	28(45.2)	5(8.1)	3(4.8)	62(100)
	2명	2(1.5)	20(14.6)	28(20.4)	61(44.5)	18(13.1)	8(5.8)	137(100)
	3명 이상	2(7.1)	4(14.3)	8(28.6)	9(32.1)	1(3.6)	4(14.3)	28(100)
소계		6(1.8)	44(13.3)	70(21.1)	155(46.8)	29(8.8)	27(8.2)	331(100)

〈표 7〉 계속

구분	매우 발전할 것이다	조금씩 발전할 것이다	유지될 것 이다	조금씩 사라질 것 이다	생략되어 없어질 것이다	모르겠다	합계	N(%)
								Statistics
성별	출가 무 딸만	5(1.7) 0(0.0)	39(13.0) 4(30.8)	62(20.7) 2(15.4)	146(48.8) 4(30.8)	25(8.4) 1(7.7)	22(24.4) 2(15.4)	299(100) 13(100)
	자녀 아들만	0(0.0)	0(0.0)	3(33.3)	2(22.2)	2(22.2)	2(22.2)	9(100)
	아들, 딸	1(10.0)	1(10.0)	3(30.0)	3(30.0)	1(10.0)	1(10.0)	10(100)
	소계	6(1.8)	44(13.3)	70(21.1)	155(46.8)	29(8.8)	27(8.2)	331(100)
출가 자녀 수	출가 무 1명	5(1.7) 0(0.0)	37(12.4) 4(36.4)	63(21.1) 0(0.0)	146(49.0) 3(27.3)	25(8.4) 2(18.2)	22(7.4) 2(18.2)	298(100) 11(100)
	2명	1(6.3)	2(12.5)	4(25.0)	4(25.0)	2(12.5)	3(18.8)	16(100)
	3명 이상	0(0.0)	1(16.7)	3(50.0)	2(33.3)	0(0.0)	0(0.0)	6(100)
	소계	6(1.8)	44(13.3)	70(21.1)	155(46.8)	29(8.8)	27(8.2)	331(100)
	합계	6(1.8)	44(13.3)	70(21.1)	155(46.8)	29(8.8)	27(8.2)	331(100)

* $p<0.05$.

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종교별로는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라는 응답에 있어 무교가 50.0%, 불교가 50.7%, 천주교가 48.6%, 기독교가 37.8%, 기타가 50.0%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다소 고수하는 불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혼례 음식의 전수와 보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 음식 중 전통 혼례 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혼례 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것이다. 응답자 331부를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산 거주 주부들이 전체의 70.4%, 경남 지역 주부들이 29.6%를 차지하였으며, 부산 지역 주부들이 경남 지역 주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혼례 음식, 폐백 음식, 예단 음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에 따라서 혼례 관련 음식의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혼례 관련 음식 상차림 및 함께 혼서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 주부들이 경남 지역 주부들에 비해 봉치며, 신부 큰상, 시부모 큰상, 함, 혼서지 등에 높은 평가가 나타났다.

3.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혼례 음식 장만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주문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손수 장만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8.7%, ‘현금으로 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9.0%, ‘출장요리’사를 이용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0.9%, 기타가 4.8%로 나타났다. 종교별($p<0.05$)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4.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은 혼례 시 음식 차림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은 ‘양가 상의 하에 간소화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6.2%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면 만족한다’가 24.8%,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된다’가 9.1%, ‘중요하지 않다’가 8.5%, ‘화려해야 한다’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별($p<0.05$), 종교별($p<0.01$)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은 앞으로의 혼례 음식 전망에 대하여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지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1.1%, '조금 씩 발전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3.3%, '생략되어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8%,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2%, '매우 발전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8%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학력별($p<0.05$)로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의 과시처럼 혼례 음식을 준비해왔던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혼례 음식을 장만하는 주체인 주부들에게 있어서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부유층이나 유명인들의 혼례와 관련된 좋지 못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혼례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며, 이러한 모습에서 더욱 부정적인 견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와 전통 음식은 아무리 시대와 문화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질 수 없고 현시대에 맞게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통해 간소화·변화하여 그러한 반복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고 사료된다.

최근 우리의 전통 혼례 문화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보존하고 고수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세계 속에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많은 노력 중 하나가 주부들에게 있어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는 요리학원, 복지관, 문화센터에 강좌들이 개설되면서 직접 배우는 학습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이로 인해 전통 혼례 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하여 혼례 문화와 혼례 관련 음식들이 시대와 문화에 부합되는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고 전통 혼례 음식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 또 혼례 문화를 흥겨운 축제로서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혼례 음식의 주체인 주부들에게 전통 혼례 음식의 계승과 보존을 위한 적절한 모델 제시가 시급한

문제이며, 또한 이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통 혼례 음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있어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 지역의 지역적 속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영자·박성옥·손상희·차성란 (1999) : 생활문화와 예절. 교육과학사: 24.
2. 강인희 (1997) : 한국의 떡과 과자. 대한교과서: 32.
3. 강인희 (1996) : 한국의 통과 의례 음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4):541.
4. 광주의 전통 음식 (1997) : 광주민속박물관 조사연구서 제6집 : 105-115.
5. 김경묘·신애숙·김경자 (2002) : 부산·경남 지역 주부들의 혼례 음식 관행과 태도에 관한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7(3):240-241.
6. 김시황 (1994) : 현대 혼례의 문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문학논총 15: 489-511.
7. 김영인 (1989) : 한국 館禮飲食 상차림에 관한 研究. 한국식문화학회지 4(3):213.
8. 김준희·정세훈·진양호 (2006. 11월) : 혼례 음식에 대한 인식도조사(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 정기 추계 학술세미나, 동의대학교, 44.
9. 윤숙경·윤서석·손경희·김천호·이종미·안명수·곽동경·정혜경 (1997) : 혼례 음식 규범의 의미와 모형제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4):451-452.
10. 윤숙자·이미영 (2002) : 서울지역 주부들의 혼례 음식에 대한 인지도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7(5):570.
11. 윤숙자 (2006) : 아름다운 혼례 음식. 질서루:

- 39.
12. 윤숙자 (2000) : 한국의 혼례 음식. *지구문화* 사:11.
13. 이동후 (1996) : 전통 혼례절차의 의미. *안동문화원*: 97.
14. 이연정·이수영·한재숙 (2003) : 한국전통
폐백 음식의 이용실태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
(I). *동아시아식생활학회* 343-344.
15. 全京秀 (1985) : 通過儀禮. 乙酉文化史:6.
16. 정혜경·손경희·윤숙경·김천호·이종미·안
중수·곽동경·박옥진 (1997) : 우리나라 혼
- 례 음식 인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식생활
문화학회지* 12(4):426.
17. 하홍국 (2000) : 호텔연회의 선택속성 및 분
석에 따른 활성화 방안연구. *세종대학교 석사
논문* 1.
18. 함 (2007. 5. 22) : [http://100.naver.com/100.nhn?
docid=186928](http://100.naver.com/100.nhn?docid=186928)

2007년 3월 10일 접수

2007년 6월 13일 게재확정